

10월12일(월)/누가복음16:1-13

제목: 사기치고 칭찬 받은 사람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그 직무를 박탈당했다(2절)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는 불의한 일에 손대기 시작한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모해서 그 주인의 빚 장부를 조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하였다.(8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칭찬 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가? 불의한 청지기는 무슨 수를 써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데 그 칭찬의 이유가 있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도덕성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성에 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이 범죄에 해당되지만 그가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를 높이 사셨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항상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특히 개인에게 닥칠 종말을 준비하라 하신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를...

10월13일(화)/누가복음16:14-18

제목: 배우자를 공부합시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음식 접시를 깨뜨리면 이혼 사유가 되었다. 만약 자기 아내가 길에서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 했다가. 외간 남자와 말을 해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혼 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성을 강조했다.(18절) 예수님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해체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가정을 세우는 재료는 돈이나 벽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와 용납과 이해이다. 부부는 항상 상대를 이해하는 센스(sense)가 있어야 한다. 부부는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지하면 상대를 읽지 못한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 중에는 이러한 공부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 즉 이 I.Q가 높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무지하면 이혼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10월14일(수)/누가복음16:19-31

제목: 지옥

매일 잔치하며 생을 즐기며 살았던 부자가 죽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죽음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천국)에 안겼다.(23절) 이 비유는 오직 한 가지 사실, 사람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가르친다. 특히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셨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고통’ (23절), ‘불 가운데 놓임’ (24절) ‘갈증’ (24절) ‘큰 구렁’ (완전한 단절, 26절), ‘과거에 대한 후회’ (27절) ‘가족애에 대한 또렷한 의식’ (28절) 등이 있는 곳이다. 지옥은 영혼들이 연기처럼 뿔뿔 날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는 곳이다. 지옥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지난 삶을 후회하였고 자기 가족들만 큼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지옥은 현실이며 실체이다. 지옥은 구체적인 곳이다. 지옥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펼쳐질 분명한 현실이며 실체이며 그리고 절망이다.

10월15일(목)/누가복음17:1-4

제목: 성령이 술보다 나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일곱 번씩이나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 일곱 번 다 용서하라 하셨다.(3-4절)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지는 사람을 세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의 일곱 번의 용서는 일반인들의 기준에 곱을 하고도 한번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곱 번의 용서는 숫자적으로 계산될 문제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성도의 표준이 이 세상의 최고 수준 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하며 그 동안 뻗었던 앙금과 감정을 푼다고 한다. 그러면 성령에 취한 성도는 막걸리 먹은 사람보다 더 높은 의의 수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성령에 취한 성도는 막걸리에 취한 사람보다 더 용서를 잘해야 한다. 용서는 힘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은 막걸리 보다 위대하기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그 힘든 용서를 잘해야 한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에서 볼 때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 때 건너가야 할 다리를 깨부수는 사람과 같다. 성령에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보다 반드시 나아야 한다.

10월16일(금)/누가복음 17:5-6

제목: 믿음 앞에서 약해지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뿔나무 뿌리가 뿔혀서 바다로 던져지라 명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6절) 이 비유의 핵심은 문자적으로 나무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밑바탕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습관이 깔려있다. 그들은 항상 과장된 표현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 예수님도 이 표현법을 즐겨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기를 범죄케 한 눈과 손은 제거하라 하셨다(마5:29-30) 만약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면 모든 성도는 다 불구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강조를 하실 때 과장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그만큼 단호하라는 말씀이지 실지로 눈과 손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겨자씨 비유도 같은 맥락이다. 뿔나무 뿌리가 통째로 뽑히라고 명하면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소유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한없이 자비로워지심을 말하는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